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3, 485 - 509

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K-MCS) 타당화 연구

변 미 경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는 Scrivner(2021)가 개발한 병적호기심 척도(Morbid Curiosity Scale: MCS)를 타당화하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0대 성인 145명(남자 94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문항양호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4요인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와 달리 19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하여 전국 20대~60대 성인 250명(남자 125명, 여자 125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구성타당도 측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K-MCS)는 5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19개의 문항은 '범죄자 심리', '초자연적 위험', '신체 침해', '대인 폭력', '주술'이라는 5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또한, 한국판 호기심 척도,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 한국판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 Templer 죽음불안 척도,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 단축판,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 한글판 범불안장애-7,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를 통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K-MCS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척도의 활용방안,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병적호기심, 한국판 병적호기심척도(K-MCS), 혐오, 어둠, 죽음, 불안, 성격요인, 타당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호기심은 지식과 새로운 경험을 인식, 포용하고 찾는 것이다(Kashdan & Roberts, 2004). 호기심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며 인간의 욕망이다. 그러나 관음증과 같은 행동장애와 관련이 있고 마약, 알코올 사용과 같은 비승인적 행동, 방화 같은 특정 유형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기도 하였다(Loewenstein, 1994). 인간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호기심 때문에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누락된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Hsee & Ruan, 2016). 나아가 호기심은 불신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Kashdan, Harrison, Polman과 Kark(2023)에 의하면 호기심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특히 부하직원과 상사의 관계에서 상사는 직원의 호기심을 불복종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호기심은 다양한 감각과 인지적 통로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인간의 감정, 인식, 행동을 유발하는 다면적인 시스템이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삶의 만족과 가장 관련이 높은 성격의 강점일 뿐 아니라(Peterson, Ruch, Beermann, Park, & Seligman, 2007) 새로운 지식이나 자원을 통합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며(Kashdan & Roberts, 2004),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불안감을 더 쉽게 견디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험을 한다(Kashdan et al., 2009).

호기심의 유형 중, 병적호기심은 불쾌한 것, 특히 죽음에 관한 관심 또는 호기심으로 설명된다. ‘병적(morbid)’이라는 형용사는 죽음이 중심적 역할을 함을 암시하지만 죽음처럼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이 병적호기심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적호기심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에 관한 관심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Scrivner, 2021). 이와 관련하여 병적호기심은 위협을 감지하고 대처하려는 필요성인 ‘위협관리’에서 비롯되며 정보를 수집하려는 동기인 ‘호기심’과 잠재적 위협을 정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인 ‘상상력’에 의해 작동한다(Scrivner, 2022). 또한 병적호기심은 공포, 폭력을 포함하는 특히 죽음에 관한 관심 또는 호기심으로, 공포영화나 책을 찾아보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된다(Scrivner & Stubbersfield, 2023).

한편 병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어두운 성격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Scrivner, 2022). 국내 작품으로 OTT에서 상위 랭킹에 기록되거나 흥행한 영화인 ‘파묘’,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오징어게임’, ‘지옥’, ‘악귀’, ‘범죄도시’와 같은 공포, 좀비, 폭력적인 콘텐츠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불쾌한 것으로 보이는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호기심인 병적호기심이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임을 암시하고 병적호기심 척도 개발자 또한 병적호기심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Scrivner, 2021). ‘2022 밀리 독서 리포트’에 의하면 2022년 소설 상위 100권 중 추리와 스릴러 비중이 1/3을 넘었고 회원들이 가장 많이 서재에 담은 책 100권 중 완독할 확률 상위 10에 ‘죽이고 싶은 아이’, ‘가면 산장 살인 사건’, ‘용의자 X의 헌신’, ‘살인의 문1’ 등 스릴러가 상위에 오르며 호러, 판타지, 초자연, 비현실과 같은 주제의 공포·스릴러물이 독자들의 선호 장르로 부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백봉삼, 2023).

병적호기심은 불안을 고조시켜 위협에 대한 경

계를 강화, 관련 정보를 찾도록 촉진하고 이는 불안-병적인 호기심-위협 탐지 및 모니터링 등의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Scrivner, 2021). 또한 병적호기심은 삶의 위험한 상황, 특히 죽음에 대해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정도를 말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의 수준은 실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병적 호기심으로 인해 죽음과 관련된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주의를 기울이면 혐오 물질을 빠르게 식별하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부재하거나 부족할 경우 잠재적으로 병원성 물질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안전과 생명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crivner, 2021). 또한 병적호기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개인의 경우 다양한 위험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 회복탄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Wang, Wang, Cai, & Tu, 2023). 그러므로 불안에 대한 반응인 병적호기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다면 불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르고 치료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죽음과 관련된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요소를 지나치게 회피하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측면에 대한 무지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적호기심은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삶의 부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Scrivner, 2021). 특히 단기 불안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적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Scrivner & Christensen, 2021). 사람들은 죽음, 폭력 등을 항상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접근함으로써 실존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고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게 되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Scrivner, Anderson, Schjødt, & Clasen, 2023).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공포를 좋아하거나 병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 강력한 심리적 복원력을 확인하였고 공포가 PTSD, 공포증, 강박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치료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도 찾았다(Scrivner, Johnson, Kjeldgaard-Christiansen, & Clasen, 2021). 이처럼 공포는 불안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증거 기반 치료로 활용될 수 있다(Scrivner & Christensen, 2021). MCS(병적호기심 척도, Morbid Curiosity Scale)는 위험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되는 병적호기심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 측정 도구로 일반적인 성격, 혐오감, 정신병 또는 일반적인 호기심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뚜렷한 개인차를 측정한다. 척도는 위험한 사람의 마음 또는 동기에 대한 호기심, 과학적 이해를 거스르거나 자연법칙에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 신체의 한계와 신체가 침해되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폭력적인 행위를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 등 네 가지 심리적 속성을 측정한다(Scrivner, 2021). 혐오감(disgust)은 인간의 9가지 기본 정서 중 하나로(Ekman, 1992), 오염 또는 질병 가능성이 있는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 오염에 대해 역겨워하는 회피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Woody & Teachman, 2000). 혐오감은 '질병-회피 모델'에

따라 인간이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지만 (Oaten, Stevenson, & Case, 2009) 혐오 민감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오히려 낮은 임계점을 초래하여 공포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De Jong & Merckelbach, 1998).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한다.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에 또한 인간은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완전한 회피는 위험한 상황의 발생 시 이를 식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인지된 비용이 낮고 이익이 높은 상황에서 위협 관련 정보를 찾는 경향을 병적 호기심이라고 한다(Scrivner & Stubberfsfiled, 2023).

호기심은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나 병적호기심은 대부분 간과되어 왔다. 병적호기심에 관한 최초의 논문으로 볼 수 있는 Zuckerman과 Litle의 연구에서 병적호기심을 측정하는 도구로 Curiosity About Morbid Events(CAME) 척도가 1986년에 개발되었다. CAME 척도는 폭력과 죽음을 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즐거움을 반영하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 대부분이 폭력을 목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병적인 호기심의 한 측면일 뿐이다. 또한 병적호기심의 핵심은 죽음 자체보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요소들에 대한 호기심인데 이 척도는 핵심을 다루고 있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Scrivner, 2021). 병적호기심과 관련된 콘텐츠는 점점 보편화되고 대중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흐름 속에도 병적호기심을 측정하는 척도는 사실상 Scrivner(2021)가 개발한 24문항의 병적호기심 척도(MCS)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차를 반영하여 심리와 행동을 측정하는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위험한 사람의 마음 또는 동기에 관한 호기심을 묻는 6문항, 과학적 이해를 거스르거나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관한 호기심을 묻는 6문항, 신체의 한계와 신체가 침해되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6문항, 폭력적인 행위를 목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6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자는 회귀분석을 통해 병적호기심이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뚜렷한 개인차 즉 성격 차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MCS를 사용하여 이러한 개인차를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Scrivner, 2021).

병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반항적이고 사회적으로 호기심이 많으며(Scrivner, 2021)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Scrivner, 2022). MCS 개발자 Scrivner는 공포영화와 일반적으로 연관된 특성 중 하나가 반항심인데 이는 공포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더 반항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ills, 2023). 연령이 낮을수록 병적 콘텐츠에 더 관심이 있다는 병적호기심과 나이의 부적인 상관관계도 밝혀졌다(Byrne, 2018). 병적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젊고 더 반항적이며 사회적으로 더 호기심이 많고 죽음에 대한 혐오감이나 두려움이 적은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섬뜩한 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죽음 등에 혐오감 또는 두려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병적호기심이 적은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신경증적이다. 예를 들어 어둡고 위험한 주제의 공포영화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경증 점수가 높고 긴장감을 느끼는 경향성이 높다(Scrivner

& Stubbersfield, 2023). 또한 병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성격 평가 도구에서 어두운 성격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어두운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의 전통적 의견이다. 그러나 최근 Heym 등의 연구에서 사람 중심 분석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하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어두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모두 보여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병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성격적 특성이 있지만 그중 일부 사람들은 공감 능력도 높았다(Scrivner, 2022). 한편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탐색적 행동을 통해 얻은 대인 관계 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수반하는 동기-행동 체계로 다소 바람직한 특성으로 평가된다(Hartung & Renner, 2013). 또한 병적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신체 절단, 폭력적인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는 매우 강렬한 부정적인 자극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보려고 한다(Oosterwijk, 2017).

서종한과 이수정(2017)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개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에게 사회적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대가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적호기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코패스 성격장애 평가, 진단과 개입은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에 병적호기심과 관련한 심리 및 행동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연대와 사회적 조화를 우선시하므로 개인주의 문화와 비교해 폭력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관심이 적을 수 있다(Wang et al., 2023). 따라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서 병적호기심척도를 검증하고 문화 간 차이를 조사하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병적호기심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므로 연구가 불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crivner(2021)가 개발한 병적호기심 척도(MCS)를 타당화하여 병적호기심 정도를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로 번안된 Korean version of the Morbid Curiosity Scale (K-MCS)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를 구하여 K-MCS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병적호기심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병적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불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공포 매체와 인지 행동 치료 또는 노출 치료와 같은 행동 치료 통합 연구의 기초와 통찰력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이 연구는 전국 20~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를 연구대상1과 연구대상2

로 구분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1은 예비조사를 위해 구글 폼(Google Form)을 활용하여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같은 답에 반복적으로 응답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3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145명의 자료를 분석에 정리하였다. 해당 설문을 완료한 연구참여자 중 일부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여 보상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94명(64.8%), 남성 51명(35.2%)이며, 연령은 20대 95명(65.5%), 30대 28명(19.3%), 40대 16명(11.0%), 50대와 60대는 각 3명(2.1%)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 2는 본 조사를 위해 대규모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250명이 표집되었고 만 20~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50~59세, 만 60~69세 등 5개 연령대 구간당 25명씩 할당되어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은 균등하게 취합되었다. 본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시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교육'를 이수하였고 교신저자는 한국심리학회 및 분과학회 연구교육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다.

측정 도구

병적호기심 척도(Morbid Curiosity Scale: MCS). 이 연구에서 타당화하고자 하는 병적호기심 척도는 Scrivner(2021)가 개발한 MCS이다. MCS는 총 24개 문항으로 1점(매우 아니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척도는 위험한 사람의 마음 또는 동기에 대한 호기심(Minds), 과학적 이해를 거스르거나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Paranormal danger), 신체의 한계와 신체가 침해되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Body violations), 폭력적인 행위를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Interpersonal violence)의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뉘며 각 하위요인 당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이고 요인 당 내적합치도는 .92, .90, .87, .89 순이다. 원저자는 내적합치도와 총점의 커트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항목전체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6 이상이면 내적합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최혜림, 2010). 총점은 24점에서 14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병적인 호기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orean version of Disgust Scale Revised: K-DS-R). Haidt, McCauley와 Rozin(1994)이 개발하고 이신애, 김지혜, 현명호(2009)가 번안하여 타당화가 이루어진 K-DS-R의 원척도는 27문항이었으나 원척도와 다른 요인구조를 보인 8문항은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여 총 15문항으로 축약되었다. 3개 하위 요인은 전체 변량의 71.8%를 설명하였으며,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도 높게 나타나는 등 측정하는 바가 일관되어 신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동물-상기혐오' .70, '핵심혐오' .72, '오염혐오' .54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상기혐오'는 '사람 손이 병 안에 보관된 것을 보는 것과 그 표본이 있는 과학실에 머무는 것은 괴롭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혐

오'는 '집 앞 쓰레기통 속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본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오염혐오'에는 '결코 공공 화장실 변기에 몸의 어떤 부위도 닿게 하지 않으려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혐오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신애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84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한국판 호기심 척도(Korean version of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K-CEI). Kashda, Rose와 Fincham(2004)이 개발하고 심미영, 엄진섭, 이선희, 김교헌(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호기심 척도로 원척도의 명칭은 '호기심과 탐구 척도(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CEI)'였으나 호기심이 '탐구'와 '몰두'라는 하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탐구'는 호기심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한국어판에서는 '호기심 척도'로 명명하였다. K-CEI는 총 7문항으로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7점(매우 동의함)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움과 도전을 추구하는 '탐구'와 진행 중인 활동에 깊이 몰입하는 '몰두'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영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77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79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단축형 어두운 성격 4요소(Korean version of Short Dark Tetrad: SD4-K). Paulhus, Buckles, Trapnell과 Jones(2021)가 개발하고 이주원, 유정아, 송원영(202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K-SD-4는 총 28문항으로 '마키아벨리즘', '자기애', '정신병질', '가학성'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1점 '매우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총점의 범위는 28점에서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두운 성격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주원 등(202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88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Templer 죽음불안 척도(K-Templer Death Anxiety Scale: K-DAS). 본 척도와 죽음불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Templer(1974)가 개발하고 고효진, 최지욱, 이흥표(2006)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Templer 죽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총 15문항으로 하위 범주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 생각의 부인, 짧은 시간 지각,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죽음 생각의 부인은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죽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지각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에 심란할 때가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점(매우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은 15점에서 75점까지 나올 수 있고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 내용 관련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효진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81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Korean Affective Lability Scale-Short Form: K-ALS-SF). Oliver와 Simons(2004)가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Affective Lability Scale-Short Form)를 황성훈(2015)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K-ALS-SF를 사용하였다. 간편형 K-ALS는 총 18문항으로 불안/우울, 분노, 우울/들뜸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불안/우울은 '때로 나는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편히 이완되었다고 느낀다. 그런데 몇 분이 안 되어서 신경이 너무 과민해져서 현기증이 나고 어질어질해진다', 분노는 '나는 내 성질을 매우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자주 전환된다'. 우울/들뜸은 '나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다음 순간에는 집중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황성훈(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K-PHQ-9). Kroenke, Spitzer와 Wiliams(2001)가 주요우울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한 우울증 선별도구를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2010)가 타당화한 K-PHQ-9을 사용하였다. 검사는 9문항으로 '없음', '2-6일', '7-12일', '거의 매일'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박승진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한글판 범불안장애-7(Korea version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범불안장애를 선별하고 그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Spitzer, Kroenke, Williams와 Löwe(2006)가 개발하고 한국어 번역을 제공한 한글판 GAD-7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2024)을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방해받았다', '2주 중 절반 이상은 방해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pitzer 등(2006)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K-PSS).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Cohen과 Kamarck(1983)가 개발하고 이종하 등(2012)이 타당화한 K-PS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0문항으로 1점(전혀 없음)에서 5점(매우 자주)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하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연구절차

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K-MCS)를 타당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사도구의 번안을 위해 본 척도의 개발자인 Scrivner에게 척도의 한국판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원문항을 번안한 후,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이 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다시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한 이중언어자에게 역번역을 부탁하여 문장 구조와 개념적 동일성 사이의 유사성을 원본과 유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어 및 표현이 달라진 문항에 대한 원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어 전체 문항 초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연구자와 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생 1인과 석사생 5인이 검수,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넷째, 예비조사와 타당화 연구를 위해 전국에서 20대에서 60대 성인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와 유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함께 포함해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해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필터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원척도가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경우 이를 국내에 적용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항 양호도 및 요인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항 양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계산하는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고,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문항 간 상관, 문항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병적호기심 예비척도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여 K-MCS의 각 문항이 원척도의 구성개념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적절한 요인 수를 탐색하였다. EFA의 추출방법은 최대우도 방식을, 요인 회전방법으로는 사각회전방식인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척도의 EFA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절차이다. 요인부하량이 .35 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본 검사를 위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한 후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병적호기심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CFA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용하였고, 구인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회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FA), 상관분석 등을 위한 IBM SPSS Version 23.0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위한 AMO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MCS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이 한국판인 K-MCS에서도 적용 가능

한지 확인하였다. 원저자 설문지의 번역본을 이중 언어자가 역번역하였을 때 단어수정이 있었던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다음과 같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이나 12번 문항에서 원저자는 'occult'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역번역 시 'supernatural phenomenon'으로 변경되었다. 16번 문항에서 원저자는 'voodoo'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역번역 시에는 'worshiping satan or cursing doll'로 의역되었다. 부두교(Voodoo)는 서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의 아이티로 16세기에서 19세기에 팔려 온 흑인 노예들이 믿던 종교로 동물 등의 산 제물 혹은 그 형상을 본뜬 대체물을 바치는 것으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데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부두교에 대해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한국어 번역 시 '악마 숭배 또는 인형 저주'로 의역하였고 역번역 시 반영되었다. 20번 문항에서 원저자는 'ouija board'라는 단어를 썼고 이는 서양의 분신사바라고 불리는 일종의 보드게임으로 귀신을 불러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이 용어 또한 국내 응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개봉된 적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한 '분신사바'라는 단어로 변경하였다. 원저자의 24번 문항에서 'witchcraft'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서양, 즉 기독교 문화에서는 해당 단어가 장래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로 주문, 마술을 뜻한다. 이는 역번역에서 'magic'으로 수정되었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에 적절한 표본과 상관행렬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적합도지수는 .82,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377.200(p<.001)로 KMO가 .6 이상,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의 p-value가 .05 이하이므로 요인분석하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6개였으나 패턴행렬을 검토한 결과 요인적재량이 .35가 되지 않는 6, 9, 22를 제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Costello와 Osborne(2005)의 연구에 따르면 탐색적 요인분석 시 선험적 기준으로, 계수 절대값의 절단점을 설정한 연구자 중 27%는 절단점을 .30으로 24%는 .40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 6%의 연구자들은 .35와 .50를 각각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자가 선택하고 일부 연구자들도 권한 .30과 .40의 중간값이 .35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3개의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이상에 .30을 넘는 요인부하량을 갖거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을 넘지 않을 경우, 교차 부하되었다고 보아 연구자에 판단에 따라 문항 삭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패턴행렬 결과를 검토한 후 문항 1, 17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1, 6, 9, 17, 22번 문항이 삭제되었고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번 문항은 'If I lived in Medieval Europe, I would be interested in attending public executions'이고 6번 문항은 'I would b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autopsy', 9번 문항은 'If I were to spot a street fight and realized that I could not be involved in the fight, I would stay and watch the fight', 17번 문항은 'I prefer violent movies and TV shows that are unrated', 마지막으로 22번 문항은 'I wonder about the effects of the World's most

fatal toxin to our bodies'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원척도의 4요인과는 다르지만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한 5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5요인 구조의 요인부하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3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1. K-MCS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145)

요인		문항내용	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1	2	3	4	5	
1. 범죄자 심리	15	수감된 연쇄 살인범이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952	.044	.044	.006	-.050	.89
	3	나는 범죄에 대해 궁금하고 살인이나 범죄에 대한 자세한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을 즐긴다.	.711	.078	-.022	.077	.003	
	11	범죄쇼에서 살인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679	.004	.095	.046	.141	
	7	진짜 살인 동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생각이 있다.	.664	-.076	-.085	.086	.130	
	19	살인자들의 성격을 연구하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527	-.024	.102	.094	.107	
	23	폭력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368	-.133	.175	-.036	-.016	
2. 초자연적 위험	4	초능력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010	-.906	-.073	.038	-.048	.68
	12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악마 등이 흥미롭다.	.069	-.901	-.036	.044	.007	
	24	마법, 주술, 신비한 영적인 힘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105	-.440	.161	.030	.065	
3 신체 침해	10	사지 절단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130	.089	.699	.116	.183	.74
	14	장례식 시신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보고 싶다.	.237	-.057	.734	-.067	-.142	
	18	박제나 미라처럼 시체를 보존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108	-.086	.597	.043	-.021	
4 대인 폭력	2	머리 이식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을 보고 싶다.	-.018	.029	.189	.387	.292	.80
	5	고대 로마에 산다면, 검투사 싸움에 가보고 싶다.	.012	-.073	-.046	.828	-.044	
	13	미국 서부시대에 산다면 두 사람 간의 결투를 보고 싶을 것이다.	.108	.008	.082	.707	-.014	
	21	중세시대의 전투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019	.000	.021	.685	.021	
5. 주술	8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참여하거나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을 볼 생각이 있다.	.167	.008	-.103	.070	.814	.83
	16	악마숭배나 저주인형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흥미롭다.	.162	-.228	.027	.197	.390	
	20	분신사바의 원리나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038	-.156	.106	-.115	.620	
		고유값	6.819	2.079	1.691	1.186	1.091	
		설명분산	35.890	10.941	8.902	6.242	5.740	
		누적분산	35.890	46.832	55.733	61.975	67.715	
		문항수	6	3	3	4	3	

요인의 수를 확정하기 위해 4요인과 6요인으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과 2요인은 원척도 문항 구성과 1개 문항에서 차이, 3요인과 4요인은 2개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다. 4개의 요인은 입력된 전체 문항의 60.79%를 설명하였고, 추출된 적재값은 52.9%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후반부에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4요인의 적합도는 낮았다. 6요인으로 설정한 경우는 여섯 번째 요인에 속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5개 요인에 속한 개별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넘는 수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이 불가하였다. 이에 문항의 내용과 통계치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요인 1은 '범죄자 심리(minds of criminals)', 요인 2는 '초자연적 위험(paranormal danger)', 요인 3은 '신체 침해(body violations)', 요인 4는 '대인 폭력(interpersonal violence)', 요인 5는 '주술(exorcism)'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1인 범죄자 심리에는 3, 7, 11, 15, 19, 23번의 6개 문항이 원척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요인 2인 초자연적 위험에는 4, 12, 24번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인 신체 침해에는 10, 14, 18번의 3개 문항이, 요인 4인 대인 폭력에는 2, 5, 13, 21의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원척도에서 문항 2('머리 이식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을 보고 싶다')는 요인 3에 포함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요인 4에 포함되었다. 문항 2에 대한 요인 3과 요인 4에서의 요인부하량 차이가 약 .1에 불과하고 요인 3, 4 모두 폭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요인 4에 포함하였다. 연구자가 주술이라고 명명한 요인 5에는 8, 16, 20번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원척도의 초자연적 위험 요인에 포함되었던 항목들이다. 주술은 미신적인 것, 현대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존재 안에는 어떤 신비스런 힘(occult virtue)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므로(김만태, 2011), 초자연적 위험 요인에 포함되었던 문항 중 일부가 주술 요인에 재편성되는 것이 가능하였다. 주술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참여하거나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을 볼 생각이 있다', '악마숭배나 저주인형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흥미롭다', '분신사바의 원리나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다섯 요인은 입력된 전체 문항의 67.72%를 설명하였고, 추출된 적재값은 57.8%를 설명하였다(표 1).

본검사

K-MCS 문항양호도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 본검사를 수행하고자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의 기술 통계치, 문항-총점 간 상관,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 문항 제거 시 내적일관성지수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항의 평균은 전체적으로 개인차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표준편차 역시 적정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의 정상분포(왜도 3 미만, 첨도 10미만; 이순행, 이희연, 정미라, 2018)에서 벗어나는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K-MCS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였을 때, .32~.77의 값을 보여 모든 문항이 병적호기심을 양호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이 연구에서는 K-MCS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요인 간 상관관계, 그리고 구성타당도를 알아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된 5요인 구조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CFA를 실시하였고 19문항이 5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X^2 검정과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를 살펴보았다(표 3, 그림 1).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RMSEA과 SRMR은 .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순행 외, 2018). 모형의 X^2 값은 384.47(df=142), p<.001으로

표 2. K-MCS 문항의 기술 통계치와 신뢰도 (N=250)

하위요인	문항 번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내적 합치도	요인에서 문항 제거 시 a
범죄자 심리	3	1.0	6.0	3.06	1.40	.42	-.64	.88	.87
	7	1.0	6.0	3.13	1.50	.14	-1.03		.84
	11	1.0	6.0	2.29	1.32	.90	-.05		.86
	15	1.0	6.0	2.82	1.45	.36	-.94		.85
	19	1.0	6.0	3.50	1.47	-.18	-.86		.86
	23	1.0	6.0	3.34	1.44	-.10	-1.02		.89
초자연적 위험	4	1.0	6.0	4.46	1.25	-.91	.44	.68	.68
	12	1.0	6.0	3.03	1.53	.13	-1.19		.55
	24	1.0	6.0	3.19	1.50	-.00	-1.06		.46
신체 침해	10	1.0	6.0	1.75	1.13	1.80	2.79	.74	.68
	14	1.0	6.0	2.36	1.21	.75	-.09		.65
	18	1.0	6.0	2.58	1.43	.56	-.70		.63
대인 폭력	2	1.0	6.0	2.77	1.50	.42	-1.02	.80	.80
	5	1.0	6.0	3.20	1.48	.10	-1.09		.69
	13	1.0	6.0	3.07	1.35	.15	-.87		.72
	21	1.0	6.0	3.15	1.36	.06	-.99		.77
주술	8	1.0	6.0	2.78	1.48	.50	-.75	.83	.76
	16	1.0	6.0	2.58	1.44	.53	-.78		.73
	20	1.0	6.0	2.46	1.34	.67	-.58		.80

표 3. K-MCS 모형의 적합도 지수 (N=250)

모형	χ^2	df	RMSEA	SRMR	TLI	CFI
MCS	384.470	142	.083	.055	.884	.904

주. RMSEA =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r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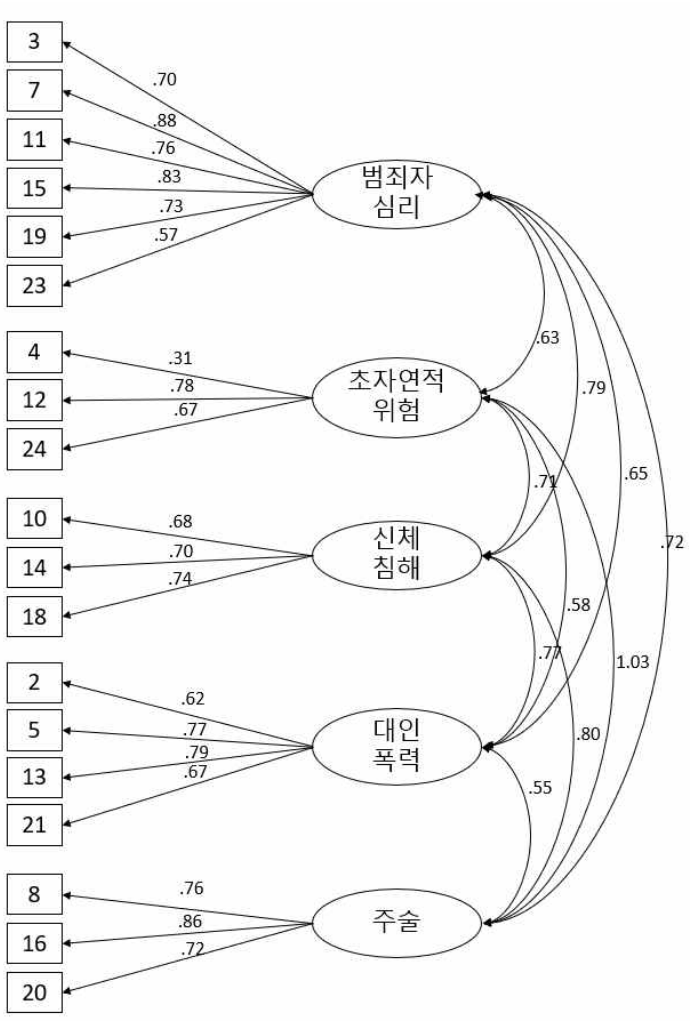


그림 1. 최종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유의한 수준이어서 의미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스퀘어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모델 적합도 지표로서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는 점(Wang et al., 2023)에서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하지는 않는 편이다.

요인 간 상관관계

CFA에서 확인된 K-MCS 구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K-MCS 총점과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69~.87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여 각 하위 요인들이 '병적호기심'이라는 하나의 구성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K-MCS 하위 요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50)

변인	범죄자 심리	초자연적 위험	신체 침해	대인 폭력	주술	전체
범죄자 심리	1.00					
초자연적 위험	.48**	1.00				
신체 침해	.65**	.48**	1.00			
대인 폭력	.58**	.42**	.62**	1.00		
주술	.64**	.72**	.62**	.46**	1.00	
전체	.87**	.69**	.83**	.80**	.80**	1.00
평균	3.03	3.56	2.23	3.05	2.61	2.92
표준편차	1.13	1.12	1.03	1.12	1.22	.916
왜도	.346	-.126	.808	.218	.457	.261
첨도	-.472	-.543	.370	-.693	-.588	-.213

** $p<.01$.

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통해 병적호기심 척도의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렴타당도 분석은 연구자가 새로 개발한 검사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의 검사들과 비교해서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만약 새로운 검사의 구성타당도가 높으면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기존의 유사 검사들과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변별타당도 분석은 수렴타당도 분석과는 달리 새로운 검사와 이와는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의 상관계수를 구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만약 새로운 검사의 구성타당도가 높으면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와의 관련성은 낮아야 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이 가정이 입증되었을 경우 새로운 검사의 변별타당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탁진국, 2007). 타당도 분석에 활용된 척도들을 살펴보면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의 핵심변인은 '혐오'이고 병적호기심 척도도 혐오감을 측정한다. 한국판 호기심 척도의 핵심변인은 '호기심'이고 병적호기심 척도는 호기심 중 병적인 호기심을 측정하므로 유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판 단축형 어두운 성격 4요소는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로 Scrivner (2022)에 의하면 병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판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핵심변인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병적호기심의 정의는 '죽음에 관한 관심 또는 호기심'이다.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의 핵심변인은 불안, 우울, 분노, 우울, 들뜸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병적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더 불안하고 신경질적이기에(Scrivner & Stubbersfield, 2023) 유관개념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의 핵심변인은 우울로 병적호기심-우울 간 유관개념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바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를 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한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글판 범불안장애의 핵심변인은 불안으로, 병적호기심은 불안을 고조시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 관련 정보를 찾도록 촉진하고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

화, 관련 정보를 찾도록 촉진하는 등 병적호기심과 불안은 유관개념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핵심변인은 스트레스로 병적호기심-스트레스 간 유관개념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바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를 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한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 표 5에 소개된 바와 같이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r=.45, p<.001)와 혐오민감성 척도 중 동물상기 혐오(r=-.34, p<.001)와 중증도 상관을 보였으며 호기심 척도(r=.21, p<.001), Templer 죽음불안 척도(r=.07, p<.001),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r=.22, p<.001), 우울증 선별도구(r=.16, p<.05), 범불안장애-7(r=.16, p<.05), 스트레스 자각척도(r=.18, p<.001)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 5. K-MCS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N=250)

척도		병적호기심 척도					
		범죄자 심리	초자연적 위험	신체 침해	대인 폭력	주술	전체
호기심	탐구	.15*	.24**	.11*	.16*	.14*	.18**
	몰두	.14*	.17*	.13*	.17**	.15*	.19**
	전체	.17**	.24**	.14*	.18*	.16*	.21**
혐오 민감성	동물상기	-.25**	-.16*	-.37**	-.29**	-.28**	-.34**
	오염	-.12	-.12	-.19**	-.15*	-.20**	-.21**
	핵심	.10	.11	.02	.01	.04	.07
	전체	-.07	-.02	-.18**	-.15*	-.14*	-.14*
어둠	마키아벨리즘	.17**	.11	.11	.15*	.14*	.18**
	자기애	.18**	.17**	.16*	.22**	.17*	.23**
	정신병질	.19**	.26**	.24**	.24**	.26**	.28**
	가학성	.25**	.37**	.40**	.43**	.40**	.45**
	전체	.34**	.35**	.34**	.41**	.37**	.45**
죽음 불안	죽음자체 두려움	-.15*	.03	-.10	.01	.01	-.08
	죽음생각 부인	.04	.05	.05	-.08	.07	.02
	죽음연관 사건두려움	-.00	.19**	.18**	.08	.15*	.12
	짧은 시각자각	.21**	.17**	.13*	.25**	.12	.23
	전체	-.02	.15*	.08	.08	.12	.07
정서적 불안정	불안우울	.11	.08	.20**	.10	.12	.14*
	분노	.15*	.16*	.22**	.17**	.17**	.21**
	우울들뜸	.20**	.16*	.20**	.16**	.19**	.22**
	전체	.18**	.15*	.24**	.16**	.18**	.22**
우울		.21**	.06	.12	.05	.10	.16*
불안		.17**	.09	.12	.08	.10	.16*
스트레스		.15*	.15*	.15*	.12	.15*	.18**

*p<.05, **p< .01.

어둠의 성격 4요소 하위 척도 중 가학성은 특히 K-MCS의 하위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가학성과 대인 폭력은 r=.43(p<.001)으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학증의 주요 특징이 타인에게 고통을 유발하려는 성향이며 가학성이 높은 스토커의 경우 피해자가 고통받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스토킹을 하는 것(이주원 외, 2022)이라는 선행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학성 문항 중 '주먹다짐을 보는 것은 나를 흥분시킨다'와 대인 폭력 문항 중 '미국 서부시대에 산다면 두 사람 간의 결투를 보고 싶을 것이다' 및 '중세시대의 전투가 어땠는지 궁금하다'는 매우 비슷한 문항이다. 더욱이 K-MCS의 대인 폭력 척도의 정의가 폭력적인 행위를 목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임(Scrivner, 2021)과 '나는 격렬한 영화와 비디오 게임을 정말 즐긴다', '나는 격렬한 스포츠를 즐겨 본다',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다' 등과 같은 가학성 문항들은 가학성과 대인 폭력이 유사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분석 결과를 더욱 뒷받침한다. 한편 K-MCS의 신체 침해 척도는 동물상기 혐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는 동물 연상 혐

표 6.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내적합치도 결과 (N=250)

하위 요인	문항	B	β	$S.E.$	C.R.	AVE	CR	내적합치도 (Cronbach' α)
전체								.93
범죄자 심리	3	1.00	.70			.39	.79	.88
	7	1.34	.88	.10	12.84***			
	11	1.03	.76	.09	11.31***			
	15	1.22	.83	.10	12.20***			
	19	1.10	.74	.10	10.90***			
	23	.83	.57	.10	8.56***			
초자연적 위험	4	1.00	.31			.25	.47	.68
	12	3.04	.78	.63	4.82***			
	24	2.56	.67	.50	5.13***			
신체 침해	10	1.00	.68			.39	.66	.74
	14	1.10	.70	.12	9.53***			
	18	1.38	.74	.14	10.01***			
대인 폭력	2	1.00	.62			.34	.67	.80
	5	1.23	.77	.13	9.24***			
	13	1.15	.79	.12	9.35***			
	21	.10	.68	.12	8.45***			
주술	8	1.00	.76			.45	.71	.83
	16	1.10	.86	.08	14.36***			
	20	.86	.72	.07	11.71***			

주. C.R.: Critical Ratio,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nstruct Reliability.
***p<.001.

오감이 가학성 점수의 유의미한 예측 인자이고 일상적 가학성이 동물과 관련된 스포츠 경기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잔인함을 반영한다는 선행연구(Meere, Egan, 2017)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K-MCS와 죽음불안 척도와는 r=.07 (p<.001)로 관련이 거의 없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는바 병적호기심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변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병적호기심은 죽음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에 관한 관심 또는 호기심이다. 그리고 병적호기심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협에 대해 학습하고 더 주의하고 경계함으로써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피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므로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K-MCS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3였으며, 각 요인별로는 범죄자 심리가 .88, 초자연적 위험이 .68, 신체 침해가 .74, 대인 폭력이 .80, 주술이 .83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K-MCS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6). 다음으로 K-MCS의 집중타당도를 파악하고자 개념타당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s: AVE) 산출을 실시하였다. 먼저 CR을 살펴보면 범죄자 심리가 .79, 초자연적 위험이 .47, 신체 침해가 .66, 대인 폭력이 .67, 주술이 .71이다. CR의 절단점은 .6으로 초자연적 위험 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의 집중타당도가 확인되었다. AVE는 최소 임계값인 .5보다 높아야 하나 Fornell과 Larcker에 따르면 AVE가 .5 미만이지만 CR 값이 .6보다 높은 경우 수렴타당도는 여전히 적절한 것으로 본다(Pervan, Curak, & Kramaric, 2018).

논 의

이 연구는 병적호기심과 관련된 심리와 행동을 개인차를 반영하여 측정하고자 개발된 Scrivner (2021)의 병적호기심 척도(MCS)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요인 수는 원저자의 4요인에서 5요인으로 증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패턴행렬을 검토하여 요인적재량이 .35 미만이고 교차부하된 문항들을 제거한 결과 '주술'로 명명한 요인이 추가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원척도의 '신체 침해' 요인의 하위 문항이었던 6번, 22번 문항과 '대인 폭력' 요인의 하위 문항이었던 1번, 9번, 17번 문항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부검에 대해 인체를 부당하게 다루거나 죽음에 대한 존중과 민감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 6번 문항(부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것 같다)이 해당 요인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2번 문항(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문화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척도가 개발된 미

국에서는 치명적 독소, 생화학적 위협 또는 과학적 음모를 다루는 스릴러, SF, 서스펜스 등의 장르의 블록버스터 영화나 범죄, 과학수사 TV 시리즈에 대한 소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대인 폭력' 요인 문항 중 유일하게 요인적재량 .35 이하로 삭제된 9번(거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지켜보려고 할 것이다)은 폭력적인 행위를 목격하는 문항이지만 폭력에 대한 관음증적 성향, 폭력에 대한 방관의 성격을 반영하기에 응답자들이 비도덕적으로 행위로 인식해 솔직한 응답에 대한 어려움으로 요인적재량이 낮게 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번(중세 유럽에 살고 있다면 나는 공개 사형집행에 참석해보고 싶다)과 17번(검열 안 받는 폭력적인 영화와 TV 쇼가 더 좋다)은 '대인 폭력'과 '주술' 요인에 교차 적재되었다. 이는 대인 폭력과 주술 모두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고 금지된 것에 대한 매혹과 관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정된 19개 예비 문항을 바탕으로 5요인 구조가 새로운 표본에서도 타당하게 확인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5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9문항의 병적호기심 척도를 타당화하였고.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은 범죄자 심리(6문항), 초자연적 위험(3문항), 신체 침해(3문항), 대인 폭력(4문항), 주술(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MCS의 각 구성개념별 신뢰도는 제1요인(범죄자 심리)은 0.88, 제2요인(초자연적 위험)은 0.68, 제3요인(신체침해)은 0.74, 제4요인(대인 폭력)은 0.80, 제5요인(주술)은 0.83으로 나타났고 MCS의 전반적 수렴타당도는 대체로 무난하다고 판단되고 MCS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K-MCS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MCS의 5요인은 마키아벨리즘, 자기애, 정신병질, 가학성, 동물상기 혐오와 중증도 상관을 보였다. K-MCS의 하위요인들이 마키아벨리즘, 가학성, 탐구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원척도 연구에서 MCS가 수렴 타당도 분석 결과 공포 매체 사용, 마키아벨리즘, 스릴 탐색 또는 추구, 폭력적 매체 소비와 중간 정도 이상의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과 부합한다. 한편 MCS 변별 타당도 분석을 통해 병적호기심과 연령, 핵심 혐오, 동물 연상 혐오, 정직-겸손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Scrivner, 2021). 마지막으로 K-MCS 5요인 간의 상관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섯 호기심 각각의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격, 혐오감, 사이코패스 또는 일반적인 호기심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뚜렷한 개인차를 병적호기심 척도가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함을 확인(Scrivner, 2021)한 원척도 개발자의 의견과 일치한다.

특히 이 연구의 타당화 과정에서 초자연적 위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 4(초능력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의 적재치가 .31로 특별히 낮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매체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초능력에 관한 많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있는 등 초능력이 대중매체의 주요 소재인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초능력이 중심 주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초능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등 이에 대한

문화 간 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MCS를 타당화한 연구에서도 4번 항목을 제외하였을 때 모델 적합도가 양호하였다(Wang et al., 2023).

이처럼 수렴타당도로 활용된 척도와 MCS 간 상관계수는 높게, 변별타당도로 활용된 척도 간 상관계수는 낮게 산출된 것은 타당도 분석에 활용된 척도들의 측정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수렴타당도 분석용 척도들은 MCS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변별타당도 분석용 척도들은 MCS와 구별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표본수가 250명으로 크지 않지만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함으로써 표본의 다양성을 유지한 부분도 타당도 상관계수가 적절하게 나온 것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MCS의 대인 폭력과 어둠의 4요소의 가학성 요인 간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기에 가학성 측정을 위해 MCS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MCS와 호기심은 낮은 상관을 보여 호기심 측정을 위해서는 MCS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MCS 하위요인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특성을 측정할 때 본 연구의 타당도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뢰도란 내적 일관성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구성 항목 간 유사성을 의미하며 척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이다(박선양, 2020). 이 연구에서 요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들이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에 K-MCS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문항과 요인별 점수와의 내적일관성지수가 .68에서 .93으로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척도의 저자인 Scrivner(2021)가 보고한 내적 일치도(.87 ~.94)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 MCS의 전체 내적타당도는 0.94이고 K-MCS는 0.93으로 모두 높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MCS를 미국과 중국 표본으로 타당화 한 연구에서도 내적타당도가 각각 0.97, 0.96으로 높게 나타났다(Wang et al., 2023). 이는 각 척도와 소척도들이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MCS가 개발된 미국 또는 서구와 K-MCS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 국내 간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K-MCS는 보편적으로 병적 호기심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K-MCS가 신뢰성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외에서 개인차를 감안하여 개발된 병적호기심 척도를 국내 사정에 맞게 타당화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본 척도의 타당화는 우리나라 성인의 병적호기심 수준을 보다 쉽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추후 병적호기심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병적호기심 척도의 요인 구조가 원척도 개발자인 Scrivner(2021)의 연구에서 도출된 4요인과 달리 5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 심리, 초자연 위험, 신체 침해, 대인 폭력, 주술의 5개 하위요인이 병적호기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척도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병적호기심 수준을 명료화하고 병적호기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병적 호기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병적 호기심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병적호기심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그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 개인의 호기심 영역을 확인하여 불안과 해당 영역을 연결 지어 불안 증상 치료와 재활 과정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의 사용은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불안과 병적호기심은 위협 감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부 메커니즘을 공유하기에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대중의 엔터테인먼트 소비 경향이나 최근 코로나19 펜더믹 경험 등으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임에도 그간 연구가 부족했던 병적호기심의 개념, 구성, 측정에 대해 Scrivner(2021)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 병적호기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 병적호기심 척도는 불안 증상을 보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 및 개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병적호기심은 불안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병적인 호기심을 통해 위협에 대해 학습하고 더 주의하고 경계하여 그 요소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피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병적호기심의 특성 중 공포는 불안감의 근원을 식별하고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지만 극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탄력성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한국판 병적호기심 척도는 국내 성인이 불안 증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불안 특징을 보이는 성인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포, 폭력, 혐오 엔터테인먼트와 다크 투어리즘 등이 점점 더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해당 콘텐츠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흥행할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병적호기심 척도의 특성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불안 증상이 있거나 공포, 폭력, 혐오, 기이한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성이 있을수록 병적호기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늘리고 오컬트, 주술, 초현실, 미스테리, 공포 키워드의 온라인 카페의 가입자를 연구 참여자로 표집하여 타당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재검사 미실시에 따라 측정도구를 사용한 결과의 일관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검사-재검사 간 시간 간격을 적절히 설정하고 연구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관심변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병적호기심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하였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사회적 관습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이 연구의 목적은 병적호기심 척도를 타당화하는 것으로 병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인, 어떤

요인들이 병적호기심 수준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이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성별, 나이, 심리·정서적 증상 및 그 정도에 따른 병적호기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척도는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개념이 형성되어 개발되었다. 즉 '병적호기심'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성격적 측면'은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양상이 두드러지게 다를 수 있다. 비록 K-MCS가 우리나라에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검증되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병적호기심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적 양상에 대해서는 탐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문화적 특성, 가치관, 사고방식, 관습, 언어 등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반영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추후 연구들은 통해 병적호기심 뿐 아니라 병적호기심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병리적 특성은 없는 성인의 불안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적 호기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행동에 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진다면 심리·정서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인차를 반영하여 병적호기심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병적호기심에 대해 더 이해함으로써 불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르고 치료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고효진, 최지욱, 이홍표 (2006).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15-328.

김만태 (2011).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 한국학, 34(1), 177-207.

박선양 (2020). 의류제품의 지속가능소비 척도 개발 및 활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박승진, 최혜라, 최지혜, 김건우, 홍진표 (2010).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불안의학회지, 6(2), 119-124.

백봉삼(2023년 3월 29일). 공포물 콘텐츠, 사계절 인기 장르된 이유…"스트레스 때문".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30329171842.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서종한, 이수정 (2017). 문항반응이론 기반 PCL-R 비교문화 연구 : 한국문화에서의 사이코패시는? 형사정책연구, 28(4), 47-88.

심미영, 엄진섭, 이선희, 김교헌 (2013).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42-762.

유지은, 양윤호 (2022). 한국 오컬트 영화의 서사 관습 변화 분석 - 〈사바하〉와 〈곡성〉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6, 195-223.

이순행, 이희연, 정미라 (2018). 한국판 성인놀이성 척도(K-APTS) 타당화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397-425.

이신애, 김지혜, 현명호 (2009). 한국판 단축형 혐오민감성 척도(K-DS-R)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49-561.

이정미, 배도희, 우종민 (201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마음건강척도의 타당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6), 431-441.

이종하, 신철민, 고영훈, 임재형, 조숙행, 김승현, 정인과,

한창수 (2012). 한글판 스트레스 자각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정신신체의학, 20(2), 127-134.

이주원, 유정아, 송원영 (2022). 한국판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SD4-K)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6), 999-1023.

최혜림 (2010). 초기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pp. 159-160). 서울: 학지사.

황성훈 (2015). 한국판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단축판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3), 625-648.

Byrne, M. T. (2018). *Morbid curiosity in actualit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death related imagery and age.* Bachelor's thesis. The University of Alabama in Huntsville, Huntsville, USA.

Clasen, M., Kjeldgaard-Christiansen, J., & Johnson, J. A. (2020). Horror, personality, and threat simulation: A survey on the psychology of scary media. *Evolutionary Behavioral Sciences, 14*(3), 213-230.

Costello, A. B.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0*(7), 1-9.

De Jong, P. J. & Merckelbach, H. (1998). Blood-Injection-Injury Phobia and Fear of Spiders: Domain Specific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gust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2), 153-158.

Ekman, P.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3/4), 169-200.

Hartung, F. M., & Renner, B. (2013). Social curiosity and gossip: related but different drives of social functioning. *PLOS ONE, 8*(7), e69996. doi: 10.1371/journal.pone.0069996

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 (2024, May). Welcome to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 Screeners. https://www.phqscreeners.com/images/sites/g/files/g10060481/f/201412/GAD7_Korean%20for%20Korea.pdf

Hill, C. R., & Hughes, J. N. (2007). An Examination of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2*(3), 380 - 406.

Hsee, C. K., & Ruan, B. (2016). The Pandora Effect: The Power and Peril of Curiosity. *Psychological Science, 27*(5), 659 - 666.

Kashdan, T. B. & Roberts, J. E. (2004). Trait and State Curiosity in the Genesis of Intimacy: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struc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6), 792-816.

Kashdan, T. B., Gallagher, M. W., Silvia, P. J., Winterstein, B. P., Breen, W. E., Terhar, D., & Steger, M. F. (2009). The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II: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987 - 998.

Kashdan, T., Harrison, S. H., Polman, E., & Kark, R. (2023). Curiosity in organizations: Addressing adverse reactions, trade-offs, and multi-level dynamic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79.*

Loewenstein, G. (1994). The Psychology of Curiosity: A Review and Reinterpre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1), 75-98.

Meere, M., & Egan, V. (2017). Everyday sadism,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disgust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2*, 157 - 161.

Mills, K. (Host) (2023, October). Why do we love scary movies? (No. 259) [Audio podcast episode]. Speaking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odcast. https://app.podscribe.ai/

episode/89290672?tabValue=1

Oaten, M., Stevenson, R. J., & Case, T. I. (2009). Disgust as a disease-avoidance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35*(2), 303 - 321.

Oosterwijk S. (2017). Choosing the negative: A behavioral demonstration of morbid curiosity. *PLOS ONE, 12*(7): e0178399 doi: 10.1371/journal.pone.0178399.

Pervan M, Curak M, & Kramaric T. P. (2018). The Influence of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Dynamic Capabilities on Firms' Profit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6*(1), 4. doi: 10.3390/ijfs6010004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uriosity [Interest, Novelty-Seeking, Openness to Experience]. In C. Peterson & M. E. P. Seligma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pp. 125 - 14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eterson, C., Ruch, W., Beermann, U., Park, N. & Seligman, M. E.P.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Robinson, O. J., Vytal, K., Cornwell, B. R., & Grillon, C. (2013). The impact of anxiety upon cognition: perspectives from human threat of shock studie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7,* 203. doi: 10.3389/fnhum.2013.00203

Scrivner, C. (2021). The psychology of morbid curiosit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morbid curiosity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3,* 111139. doi: 10.1016/j.paid.2021.111139 .

Scrivner, C., Andersen, M. M., Schjødt, U., & Clasen, M. (2023).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scary play in three types of horror fan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35*(2), 87 - 98.

Scrivner, C. & Christensen, K. A. (2021). Scaring away anxiety: Therapeutic avenues for horror fiction to enhance treatment for anxiety symptoms. *PsyArXiv.* doi: 10.31234/osf.io/7uh6f

Scrivner, C., Johnson, J. A., Kjeldgaard-Christiansen, J., & Clasen, M. (2021). Pandemic practice: Horror fans and morbidly curious individuals are more psychologically resili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110397. doi: 10.1016/j.paid.2020.110397.

Scrivner, C., (2022). *The psychology of morbid curios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USA.

Scrivner, C., & Stubbersfield, J. M. (2023). Curious about threats: Morbid curiosity and interest in conspiracy theories in US adul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15(1), 129-147.*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 - 1097.

Wang, X., Wang, Q., Cai, Y., & Tu, D. (2023). Measurement invariance and latent mean differences of the morbid curiosity scale (MC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eliyon,* 9(9), e19973. doi: 10.1016/j.heliyon.2023.e19973

Woody, S. R., & Teachman, B. A. (2000). Intersection of disgust and fear: Normative and pathological view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3), 291 - 311.

원고접수일: 2023년 11월 1일
논문심사일: 2023년 12월 13일
게재결정일: 2024년 3월 1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3, 485 - 509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bid Curiosity Scale

Migyeong Byun
Ko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Morbid Curiosity Scale (MCS) developed by Scrivner (2021) and confirm its psychometric propertie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assessed the quality of the items and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ata from 145 adults (94 males, 51 females) in their 20s and 60s nationwide, and found that a five-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19 items was more appropriate than the original scale consisting of 24 items with four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analyzed in 250 adults (125 men and 125 women) in their 20s to 60s nationwide. First, CFA of construct validity show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K-MCS has an appropriate five-factor structure, i.e., a total of 19 items were explained by five factors: “minds of dangerous people,” “paranormal danger,” “body violation,” “interpersonal violence,” and “exorcism.” The paper also examined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the Korean Disgust Scale Revised, the Korean Short Form Dark-4, the Korean Templer Death Anxiety Scale, the Korean Affective Lability Scale-Short Form, the Korean Patient Heath Questionnaire-9, the Korea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and the 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We also examine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MCS and found it to be adequate. Finally, the applications of the scal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Morbid curiosity, Korean Morbid Curiosity Scale(MCS), Disgust, Dark, Death, Anxiety, Validation